
	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1년 9월 30일(목) 총 3매				
담당 부서	도시계획과 재생콘텐츠과	담당자	•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주환 ☎440-4631 • 담당자 이선오 ☎440-4633 • 개항장재생팀장 조항만 ☎458-7336 • 담당자 오윤석 ☎458-7337	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	
		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## 송학동 옛 시장관사 및 소금창고 부지 ‘역사산책 상징 공간’ 으로 조성

- 9월 29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 -  
- 100년 역사적 장소성 고려해 전시·체험·쉼터 등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9월 29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구 송학동 인근의 옛 시장관사 및 소금창고 부지 4,234.5㎡ 를 도시 계획시설(문화시설)로 결정했다고 밝혔다.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을 ‘원안수용’ 했다.

옛 시장관사(송학동1가 2-2번지)는 1901년경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연면적 368.46㎡ 규모로 지상1층, 지하1층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. 1967년 제14대 김해두 시장부터 2001년 초대 민선 최기선 시장까지 17명이 생활했으며, 이후 역사자료관으로 활용돼 왔다.

소금창고 부지(송학동1가 8-4번지 일원)에는 1939년 신축된 1930년대

일본에서 유행한 도시문화주택형태의 적산가옥(목조 134,41㎡)과 부속 용도의 소금창고(50.24㎡) 건물이 남아 있다.

인천시는 2018년 10월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방안을 발표하고, 근대 물류·문화의 중심지였던 개항장의 역사문화도시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역사, 문화, 관광 등 지역문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(사업) 발굴을 위해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했다.

이 가운데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이 있으며, 사업추진을 위해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중구 송학동1가 2-2번지와 8-4번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로 신규 결정한 사항이다.

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“사업대상지는 1883년 인천 개항 때 조계지를 계획하면서 구획된 곳으로, 100년 이상의 역사적 장소성을 고려해 지반의 변형이나 석축의 훼손, 새로운 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해 원형을 보존하고, 인접 제물포구락부, 자유공원과 공간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해 전시·체험·쉼터 등 역사산책 상징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”고 말했다.

〈도시관리계획(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도〉

